

롤랑 메네 (Roland Meynet, 예수회)*

앓을 통한 구원
종의 네 번째 노래
이사 52,13-53,12

둠 (Dhum)이 네 편의 «종의 시들»을 구별해낸 후¹, 주석가들 대부분은 이 네 번째 시의 한계 규정 (52,13-53,12)에 대해 일치한다². 반면에 그 구성에 관해서는 만장일치를 보기가 어렵다³. 이미 오래 전부터 고전 수사학의 방식으로, 종종 시연 (strophe)으로⁴, 본문의 구상을 제시해오던 이들을 별도로 하더라도, 최근 상당수의 저자들은 이 시가 많은 다른 성경 본문들과 같이 섹족 수사학의 법칙들에 따르면서 집중 구조를 이룬다는 데 주목했다⁵. 사실, 이 발견이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비록 그들의 작업들이 최근 십여 년간의 연구들에 전혀 인용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오래전의 두

* 저자에 의해 수정을 거친, 베니아미노 레스타 (Beniamino Resta)의 이탈리아어 역으로부터 박점례의 한국어 번역 (원문: «Le quatrième chant du serviteur. Is 52, 13-53,12», *Greg.* 80 (1999) 407-440).

¹ B. DHUM, *Das Buch Jesaja*, HK III/1, Göttingen 1892.

² 예를 들어, P. BONNARD, *Le Second Isaïe. Son disciple et leurs éditeurs. Is 40-66*, Etbib, Paris 1972, 268 참조. 히브리어 전승에서 이 본문은 온전히 단 하나의 부분 (parashah)을 형성함을 주목할 것. 반대 의견으로, ORLINSKY, H.M., «The So-Called “Servant of the Lord” and “Suffering Servant” in Second Isaiah», in *Studies on the Second Part of the Book of Isaiah*, VT.S 14, Leiden 1967, 17-23; 이 저자는 이 시의 일련으로부터 52,12-15 을 분리한다; 또한 R.N. WHYBRAY, *Thanksgiving for a Liberated Prophet. An Interpretation of Isaiah Chapter 53*, JSOT.S 4, Sheffield 1978, 25, n. 1; 109-110 참조.

³ 몇 가지 입장들의 논평에 대해서는 P. GRELOT, *Les Poèmes du Serviteur. De la lecture critique à l’herméneutique*, LeDiv 103, Paris 1981, 51-54; 이탈리아어 판: *I canti del Servo del Signore. Dalla lettura critica all’ermeneutica*, Studi biblici 9, Bologna 1983, 46-50 참조.

⁴ 예를 들면, E.J. KISSANE, *The Book of Isaiah*, Dublin 1943, II, 175: 이 저자에 따르면, 이 시는 넷 혹은 다섯 행들로 된 여섯 시연을 포함한다. (13-15; 1-3c; 3c-5; 68b; 8c-10; 11-12).

⁵ 이 저자들 중 다음 참조: C. WESTERMANN, *Das Buch Jesaja (Kapitel 40-46)*, Göttingen 1966.1970²; 이탈리아어 판: *Isaia (capp. 40-66)*, Brescia 1978, 307-310; J.D.W. WATTS, *Isaiah 34-66*, World Biblical Commentary 25, Waco TX 1987, 229; P. BEAUCHAMP, «Lecture et relecture du quatrième chant du Serviteur. D’Isaïe à Jean», in J. Vermeylen ed., *The Book of Isaiah. Le livre d’Isaïe*, BETL 81, Louvain 1989, 325-355 (53,6 에 집중); R.E. WATTS, «The meaning of Isaiah LII,15», *VT* 40 (1990) 327-335 (53,3-6 에 집중); C. TAUDIÈRE, «Le serviteur souffrant. Isaïe 52/53», *Christus* 38 (1991) 442-450 (53,6 에 집중); A.R. CERESKO, «The Rhetorical Strategy of the Fourth Servant Song (Isaiah 52,13-53,12). Poetry and the Exodus-New Exodus», *CBQ* 56 (1994) 50-54 (53,5cd 에 집중); A.WÉNIN, «Le poème dit du “Serviteur souffrant” (Is 52,13-53,12). Proposition de lecture», *FoiTe* 24 (1994) 495-497 (교차대구적 구성: A. 52,13-15; B. 53,1-6; B’. 53,7-10; A’. 53,11-12). 가장 심화된 분석: C. LICHTERT, *Étude du quatrième poème du Serviteur. Is 52,13-53,12*, 1996년 R. Meynet의 지도 하에 그레고리오 대학 신학부에 제출된 성경 신학 석사 논문 (미발표 작); 이 분석은 다음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석들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J. VERMEYLEN, *Les Prophètes d’Israël. Le phénomène prophétique dans le cadre de la société israélite ancienne et du témoignage biblique*, Bruxelles 1996, 265-266.

연구자들, 20세기 초의 알베르 콩다민 (Albert Condamin)⁶과 그보다 앞선 19세기 중엽의 존 포브스 (John Forbes)⁷가, 이미 각기 독자적 방식으로 유사한 결과들에 도달했었다.

어제나 오늘의 이러한 제안들이 비록 이 시를 구성하는 단일체들의 한계들 (limiti) 설정에 있어서나, 그 중심의 정확한 식별에 있어 다소간 차이는 보일지라도, 이런 수렴은 고무적이다⁸; 이 분석들의 대부분이 덜 조직적이라 해서 놀라울 것은 없다. 그러므로 ‘수사학 분석’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밀한 방법론을 적용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⁹. 이 시가 하나의 단일문을 이룬다는 데 대해서 절대적 확신을 얻고자 한다면,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 – 특별히 제이 이사야서 – 에 대한 철저한 기초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실상, 한 문학 단일체를 분석하려 한다면, 그를 선행하는 단일체와 그를 후속하는 단일체의 한계들 등등 그렇게 나아가 전체에 이르기까지 한계들이 식별되지 않으면, 그 연구 단일체의 한계들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¹⁰. 이 거대한 작업이 완성되리라는 기대 속에서, 본 연구는 이 본문의 열다섯 개의 절 (versetti)이, 단 하나의 의미단락 (passo 또는 pericope)을 구성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할 것이다. 이 분석이 본 단락의 내면적인 일관성을 명확히 밝혀낸다면, 이 가설이 합리적이라는 첫 입증이 될 것이다.

이에 대두되는 주된 어려움은, 수사학적 유형의 분석들 대부분이 단 하나의 기준, 즉 «목소리들» (voci)의 기준에 어떤 결정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는 것이다¹¹: «제기할 문제는 이것이다: 이 본문 내내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¹². 이것이 이 본문이 지닌 가장 비중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목소리들», 다시 말해

⁶ *Le Livre d'Isaïe*, Paris 1905, 318-324: 52,13-15 (연) / 53,1-3 (대조연) / 53,4-6 (중간연) / 53,7-10a (연) / 53,10b-12 (대조연); 그는 예언자가 중심의 세 연들에 나오는 반면, 하느님이 양극 연들에서 말씀하신다는 데에 주목한다. Condamin의 이론과 성경 수사학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R. MEYNET, *L'Analyse rhétorique. Une nouvelle méthode pour comprendre la Bible. Textes fondateurs et exposé systématique*, Initiations, Paris 1989, 137-139; 이탈리아어 판: *L'analisi retorica*, Biblioteca biblica 8, Brescia 1992, 112s 참조.

⁷ *The Symmetrical Structure of Scripture: or, the Principles of Scripture Parallelism exemplified, in an Analysis of the Decalogue, the Sermon on the Mount, and other Passages of the Sacred Writings*, Edinburg 1854, 311-315: A: 52,13-15 / B: 53,1-3 / C: 53,4-6 / B': 53,7-10 / A': 53,10-12 (전체의 정확한 중심은 6 절이다); Forbes는 자기 자신의 분석을 완료한 후 «Stier가 그의 “Jesaias, nicht Pseudo-Jesaias”의 409 쪽 한 각주에서, 여기 제안된 것과 같은 배치를 제안함»을 발견했다고 덧붙인다 (p. 311, n. 1).

⁸ N. 5-7 참조.

⁹ R. MEYNET, *L'Analyse rhétorique*; 특히 교정, 증보된 영어 판 참조: *Rhetorical Analysis. An Introduction to Biblical Rhetoric*, JSOT.S 256, Sheffield 1998; 나는 이 시의 첫 분석을 이미 다음에서 했었다: «*Quelle est donc cette Parole?*» *Lecture “rhétorique” de l'Évangile de Luc (1-9, 22-24)*, LeDiv 99, Paris 1989, vol. B, Pl. 12-13 (vol. A, 181-182도 참조). 본 연구에서, 본문 비평, 어휘학적 문제들과 관련된 것에 대한 내 모든 입장들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는 없다; 마소라 본문을 우선시한다.

¹⁰ 루가 복음서나 아모스서에 대해서처럼: R. MEYNET, *L'Évangile selon saint Luc*, Rhétorique biblique 1, Paris 1988; 이탈리아어 판: *Il Vangelo secondo Luca. Analisi retorica*, Retorica biblica 1, Roma 1994; P. BOVATI– R. MEYNET, *Le Livre du prophète Amos*, Rhétorique biblique 2, Paris 1994; 이탈리아어 판: *Il libro del profeta Amos*, Retorica biblica 2, Roma 1995.

¹¹ 예를 들어, P.-É. BONNARD, *Le Second Isaïe. Son disciple et leurs éditeurs. Is 40-66*, EtBib, Paris 1972, 269; P. BEAUCHAMP, «Lecture et relecture», 326-327 참조.

¹² A. WÉNIN, «Le poème dit du “Serviteur souffrant”», 495.

화자들의 변화는 어떤 구성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언어 체계의 수많은 요소들 중 하나를 대변할 따름이다¹³. 화자들의 변화들이 관련은 있을 수 있으나, 단지 구성의 다른 표지들의 치밀한 전체 속에 들어갈 때라야만 의미를 지닌다; 바로 내가 «표식들의 수렴»이라 불렀던 것이다¹⁴. 마찬가지로, 어휘 반복들의 철저한 목록도 한 본문의 구성을 결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¹⁵.

마지막 예비적 관찰: 분석은 본문 조직의 다음 단계들 각각으로 이끌어져야 한다. 두 세기 반 이후¹⁶, «절들»로 알려진 구성의 최소의 단일체들을 식별하기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절(segmento)은 하나나 둘, 혹은 세 «구들»(membri)로 형성되며, 따라서 «일구»(unimembro), «이구»(bimembro), «삼구»(trimembro)라 불린다. 고등 단계에서는 하나나 둘 혹은 세 절들이 한 «문단»(brano)을 형성한다; 그 다음 하나나 둘 혹은 세 문단들이 한 «부분»(parte)을 이룬다; 마지막으로, «단락»(passo 또는 pericope: 독서나 낭독의 단위체)은 하나나 그 이상의 부분들로 형성된다¹⁷.

말하자면, 참으로 철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들(segmenti), 다음으로 문단들(brani), 소부분들(sottoparti), 부분들(parti), 그리고 끝으로 단락(passo), 이렇게 각 단계의 세밀한 분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시 쓰기로 각 단일체들의 구성을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 본문이 서른 절을 포함하고 있고, 이 절들이 열여섯 문단을 형성하며, 이 문단들은 세 부분을 형성하고 이중 둘이 세 소부분에 의해 형성되었으므로, 적어도 십세 번 이상의 다시 쓰기가 필요하리라! 독자는 단축하는 게 필요함을 쉽게 가능할 것이다: 다시 쓰기들은 소부분들의 단계에서 시작할 것이나, 인쇄 기교들은 설명들과 같이 절들과 문단들 단계에서 분석을 수행하도록 해줄 것이다.

종의 네 번째 시가는 한 단락의 크기에 속한다. 각각의 세 부분들이 차례로 분석될 것이다; 그런 다음, 전체의 관계들이 연구될 것이다. 해석은 세 부분 각 부분별로 제시될 것이며, 그런 다음 단락에 대해 그 전체 안에서 제시될 것이다.

¹³ 한 본문의 구성을 표시할 수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열거, 분류된 R. MEYNET, *L'Analyse rhétorique*, «Rapports entre éléments linguistiques», 178-196; 이탈리아어 판: *L'analisi retorica*, «Rapporti tra elementi linguistici», 143-157 참조.

¹⁴ *L'Évangile selon saint Luc*, II, 257-258; 이탈리아어 판: *Il Vangelo secondo Luca*, 722-724; R. MEYNET – L. POUZET – N. FAROUKI – A. SINNO, *Rhétorique sémitique. Textes de la Bible et de la Tradition musulmane*, «Patrimoines. Religions du Livre», Paris 1998, 279-281 도 참조.

¹⁵ P.R. RAABE, «The Effect of Repetition in the Suffering Servant Song», *JBL* 103 (1984) 77-81 참조.

¹⁶ 적어도 R. LOWTH, *De sacra poesi Hebraeorum*, Oxford 1753 (diciannovesima lezione sul parallelismo dei membri) 이후; R. MEYNET, *L'Analyse rhétorique*, 25-36; 이탈리아어 판: *L'analisi retorica*, 21-30 참조.

¹⁷ R. MEYNET, *L'Analyse rhétorique*, 197-300 참조; 이탈리아어 판: *L'analisi retorica*, 159-244; ID., «Analyse rhétorique du Psaume 51. Hommage critique à Marc Girard», *RivBib* 45 (1997) 187-226. 가끔 — 여기서처럼 — «부분»과 정의가 같은 «소부분» 단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역자 주: 본문 구성의 각 단계들을 지칭하는 전문용어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용어들을 이해하려면 각 용어에 대한 저자의 정의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첫 번째 부분 (52,13–53,3)

첫 부분은 집중 구성 (composizione concentrica)에 속한다: 긴 두 소부분 (52,13-15 그리고 53,2-3)이 하나의 이중 질문 (53,1)을 틀에 끼워넣는다.

구성

첫소부분 (52,13-15)

+ ¹³ 보라,	비추리라	나의 종 이:	
-	오를 것이며	들어올려지리라	
- 그리고	드높아지리라	더없이.	

:: ¹⁴ 마치	질겁하듯이	너 를 보고	많은 이들이,
	—망가졌으므로	사람 같지 않게	그의 외양
그리고	그의 외관	아담의 아들들 같지 않게 —	

:: ¹⁵ 그렇게	놀라리라	민족들이	수많은
+ 그 에 대해	다물리라	임금들이	그들의 입을:
- 사실	이야기되지 않았던 것을	그들에게	보리라
- 그리고	듣지 못했던 것을		깨달으리라.

이 소부분은 세 문단들로 형성된다¹⁸. 처음 (13)과 마지막 (15bcd)¹⁹은 ABB' 형의 삼구 일절 길이에 속한다; 각각의 경우, 두 마지막 구들은 «그리고» (13c 와 15d)에 의해 동치된다; 15b 의 «그»는 13a 의 «나의 종»으로 반송한다. 첫 절이 «종»에게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반면, 마지막은 그의 들어올려짐이 «임금들»에 미칠 놀라운 결과를 예고한다; «종»과 «임금», 이 두 용어가 이중적으로 대립되는 걸 주목할 것: 의미상으로도 아니라 숫자상으로도.

중심 문단 (14-15a)은 세 절을 포함한다. 극단 (estremi)의 일구들 둘이 전적으로 병행인데, 끝에서는 *rabbim* («많은 이들»과 «수많은»으로 번역됨)에 의해, 시작에서는 «마치»와 «그렇게»에 의해 상호 연관된다; «너» (13a 의 «종»)와 «민족들»처럼 «질겁하리라»와 «놀라리라»도 상응된다. 중심 (14bc)에, 선행하는 구에서 질겁하는 이유들이 명시되는 이구 하나가 삽입된다: 술어 («망가지다»)는 둘째 구에서 재취되지 않으나 리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의 결여가 단일 용어 «사람»에 상응하는 «아담의 / 아들들», 이 두 용어들에 의해 보상된다.

¹⁸ 이 본문의 무수한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D. BARTHÉLEMY,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OBO 50/2, Fribourg – Göttingen 1986, 383-395 참조. 역자 주: 제시된 분석에서는 우리 어법에 안맞아도 원어의 배열을 보여주기 위해 히브리어 어순을 최대한 따랐다. 그러나 뒤에서 전체를 다룰 때는 우리 말 어순도 최대한 존중했다.

¹⁹ 절들의 숫자를 동반하는 문자들은 다시 쓰기의 구들에 해당한다.

한 문단에서 다른 문단으로, 중심 문단 (14a) 시작에 있는 «너»는 첫 문단 (13a) 시작의 «나의 종»을 언급한다; 대칭 방식으로, 중심 문단 끝 (15a)의 «민족들»은 마지막 문단 (15b) 시작의 «임금들»을 점유상 예고한다²⁰. 15c 의 «보리라»는 14b 의 «외양»과 같은 뿌리에 속한다 (*r'h*). 보통 «해내다»로 번역되는 첫 동사 (*yaškil*)는 «이해시키다», «비추다»를 의미할 수도 있어서²¹ 이를 «외양»과 «보리라»와 관련 짓도록 유도하며, 이는 몸소 민족들의 임금들의 시각의 변화를 작업하는 이를, 종 안에서 알아보는 결과로서 얻어진다; 그렇게 극단의 두 동사 «비추리라»와 «깨달으리라»는 이 소부분 전체를 틀에 끼운다.

세 번째 소부분 (53,2-3)

+ ² 그리고 그는 올라왔다	새순처럼	그분	얼굴 앞에서
+ 그리고 뿌리처럼	메마른		땅으로부터;
-외관 없다 그에게	그리고 아름다움 없다	우리가	그를 바라볼 만한
-	그리고 외양 없다	우리가	그를 바랄 만한.

- ³ 그는 멸시받았고	배척당했다	사람들로부터,	
+ 고통들의 사람이고	알려졌다	병에 의해;	
+ 남들이 가리는 이처럼	얼굴을	그로부터,	
- 그는 멸시받았다	그리고 앓았다	우리는	그를 존경하지.

이 소부분의 두 문단은 각기 이구 이절에 의해 형성된다 (2; 3). 첫 문단에서, «뿌리처럼»은 «새순처럼»에 상응하며, «땅으로부터»는 기원을, «그분 얼굴 앞에서»는 어떤 면에서 종말을 표시한다; 첫 절의 동사 «올라왔다» (2a)는 두 번째 구에서 재취되지 않으나, «땅»을 평가하는 «메마른»에 의해 보상된다. 두 번째 절의 두 구는 두 번째 구에서 첫 용어의 절약과 함께 병행이다; 2d 의 «외양»은 2c 의 «바라볼 만한»과 같은 어근에 속한다.

두 번째 문단의 네 구는 첫 문단처럼 병행 (parallelo)으로가 아니라 교차 대구법 (chiasmo)으로 구성되었다. 극단의 구들은 같은 동사, «그는 멸시받았다»로 시작한다; 끝 용어들 (termini finali), «사람들»과 «우리는»은 둘 다 복수이나, 끝에서 일 인칭 «우리»로 넘어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심의 구들 (3bc)은 이 종이 경멸의 대상인 이유들을 설명한다: 그의 «고통들»과 그의 «병» (3b)

²⁰ 이 용어들은 전부 같은 위치, 즉 이 용어들이 있는 해당 구들에서 세 번째에 위치된다.

²¹ 예를 들어, P. BEAUCHAMP, «Lecture et relecture du quatrième chant du Serviteur», 334 에 따르면; 같은 동사가 이사 41,20 에 다시 나온다: «이는 주님의 손이 이것을 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그것을 창조하셨음을 모두가 보아서 알고, 살피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44,18 에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의 눈은 온갖 시력에 닫혀 있고 그들의 마음은 온갖 이/상에 닫혀 있다.»; B. GOSSE, «Isaïe 52,13-53,12 et Isaïe 6», RB 98 (1991) 538 참조.

때문인데, 이 때문에 그 다음 구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린다 하니, 그가 나한자처럼 혐오스러움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이다.

한 문단에서 다른 문단으로, «처럼»이 세 번 (2a, 2b 그리고 3c) 재취되고, «얼굴»은 2a와 3c에서 돌아오며, 부정은 마지막 절들을 표시하는 일 인칭 복수와 함께 끝 용어들로 (2cd와 3d) 작용한다; 유사어들 «바랄 만하다»와 «존경하다» (2d와 3d)도 끝 용어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 소부분 (53,1)

+ 누가	믿었던가	우리가 들은 것을	
		그리고 주님의	팔이
+ 누구에게	계시되었나?		

이 중심의 소부분은 교차 대구법으로 구성된 이구의 단 하나의 절을 포함한다; 극단 용어들 (termini estremi)은 동일 의문사 «누구»에 의해 표시된다. 구들의 순서가 역전된 듯하다. 실상 하느님의 계시(두 번째 구)는 보통 신앙을 앞선다(첫 구).

이 부분의 전체 (52,13-53,3)

+ ¹³ 보라, 나의 종이 **비추리라**:

- 오를 것이며 들어올려지리라

- 그리고 더없이 드높아지리라.

= ¹⁴ 마치 많은 이들이 너를 보고 질겁하듯이,

: — 그의 **외양**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졌으므로

: 그리고 그의 **외관**은 **아담의 아들들** 같지 않게 —

= ¹⁵ 그렇게 수많은 민족들이 놀라리라.

+ 그를 보고 **임금들**이 그들의 입을 다물리라 ;

- 사실 그들에게 **전혀** 이야기되지 **않았던** 것을 그들은 **보리라**

- 그리고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깨달으리라**.

53,¹ 우리가 **들었던** 것을

누가 믿었던가

그리고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었나?

+ ² 그리고 그는 그분 얼굴 앞에서 새순처럼 **올라왔고**

+ 그리고 메마른 땅으로부터 뿌리처럼;

- 그에게 우리가 그를 **바라볼 만한 외관**도 아름다움도 **없었고**

- 우리가 그를 **바랄 만한 외양**도 없었다.

- ³ 그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고 배척당했다,

+ 고통의 **사람**이고 병에 익숙했다;

+ 남들이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이처럼**,

-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경하지 않았다**.

극단의 소부분들이 긴 반면 (열 구와 여덟 구), 중심 부분 (53,1)은 단일 이구이므로 아주 짧다: 종종 성경 본문들 안에서 빈번하듯, 구성의 중심은 부분 전체에서 유일한, 어떤 질문에 의해 차지된다. 첫 소부분에서 어근 *r'h* 의 두 반복에 (14b 의 «외양»과 15c 의 «보리라») 세 번째 소부분에서 같은 어근의 두 반복이 (2c 의 «바라볼 만한»과 2d 의 «외양») 교차 대구법으로 상응한다; 중심 소부분의 마지막 동사 «계시하다» (1b)와 같이 «비추다»로 번역된 첫 소부분의 첫 동사, 이 둘도 같은 목록의 부분을 이룬다; 여기에 «외양»의 유사어인 14c 와 2c 의 «외관»과, 마지막 부분 두 문단의 끝 용어들로 작용하고 있는 유사어들인 «바랄 만하다»와 «존경하다»

(2d.3d)도 덧붙이는 게 필요하다; 15c 의 «보다»와 병행으로 채워진 첫 소부분의 마지막 동사 «깨달다» (15d)는 이 모든 용어들이 감각적 시각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성에 관한다는 것을 잘 보게 해준다. — «듣다» (15d.1a)의 두 반복은 첫 두 소부분들 간 중간 용어들 (termini medi)의 역할을 수행한다. — 15cd 의 동사들과 3d 의 마지막 동사의 이중 부정들은 두 극단의 소부분들에 대해 끝 용어들로 작용한다. — 마지막 부분 시작의 «오르다» (2a)와, 첫 부분 시작의 «오르다», «들어올려지다», «드높아지다» (13bc)로 번역된 그의 유사어들은 시작 용어들 (termini iniziali)로 고려될 수 있다. «사람»은 14b 와 3b 에서 재취된다; 3a 의 복수 «사람들»은 14c 의 그 유사어 «아담의 아들들»에 상응한다. — 하느님의 이름 («야훼»)은 부분의 중심 (1b)에 단 한번만 나타날 뿐이다.

시간적 순서는 역전된 듯하다: 사실상, 그가 영광받으리라는 예고가 실질적으로 첫 소부분 전체 (52,13-15)를 차지하는 반면, 마지막 소부분 (53,2-3)은 이 종의 낮추어짐 묘사에 전부 바쳐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소부분 중심 (14-15a)은, 이번에는 시간적 순서로, 낮추어짐 앞에서 전체의 경악 (14a)과 영광 받음 앞에서 경이 (15a)를 관계에 놓는다. 첫 소부분이 초점화하는 삽입 (14bc)은 마지막 소부분에서 발전될 것이다.

첫 소부분에서 당신 종에 대해 말하는 이는 하느님이시다 (그러나 중심에서 그를 향한다: 14a); 마지막 소부분에서 일 인칭 복수로 그들 사이에서 주님의 종에 대해 (2a 의 대명사 «그의»)는 1b 의 «야훼»를 언급한다) 말하는 이는 사람들 (더 정확히는 15b 의 «임금들»)이다; 중심의 질문 (53,1)은 다른 두 소부분 간의 추이를 보증한다: 첫 구의 일 인칭 복수 («우리»)는 세 번째 부분의 «우리»들을 예고하며 두 번째 구는 첫 소부분에서 말하는 이를 언명한다.

해석²

높은 데로부터의 계시

주 하느님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수많은 민족들»과 그들의 «임금들» (15)에게 일어날 것을 예고하신다. 흥미롭게도 그분의 담화는 그들을 향하지 않는다: 그분은 그들에 대해 늘 3인칭으로 말씀하신다. 은밀한 방식으로 (14a), 담화가 향하는 유일한 인물은 — 마소라 본문에 따르면 — 종이다; 다른 데서는 어디서든 그분은 그에 대해 3인칭으로 말씀하신다 (13.15b). 이 부분 중심에서부터, 하나의 «우리»가 무대에 등장하는 것 같다²³. 그러나 이 두 번째 목소리는 현재하지 않는다; 마치 하느님이 민족들이 알아보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예고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종의 미래로써 종이 들어올려질 날이 예고된다. 이 해석은 이 본문의 핵심 (53,1)을 나타내는 «계시»

²² 여기서 내가 제공하는 것은 분명 나의 풀이나 그걸 어디서 따왔는지 기꺼이 말하련다: 본질적으로 Paul Beauchamp (*Psaumes nuit et jour*, Paris 1980, 240-245; «Lecture et relecture»), André Wénin («Le poème dit du “Serviteur souffrant”»)과 Marie Balmory 로부터인데, 후자 덕에 나는 «Groupe Déluge»에서 이 시의 독서에 참여하도록 초대받는 행운을 누렸다 (Marie Balmory 의 근간 예정, 다음 주제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Le guérisseur du “Nous”»).

²³ 많은 논의를 거친, 이 목소리의 정체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C.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An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London 1948, 150-151; P.BEAUCHAMP, «Lecture et relecture du quatrième chant du Serviteur», 326-338 참조. 본문의 구성은 민족들, 특별히 막 다뤄진 그들의 임금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사상으로부터 불가결한 듯하다. 그들이 «입을 다물리라» (15b)고 하느님이 예고하신 후 즉시 민족들의 임금들의 담화가 시작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이것으로 그들이 말하게 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되고, 영감받았던 것임을 표시하려는 방식이 아니라면 말이다²⁴. 말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나 그들에게 직접 향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민족들의 임금들을 비추는 것은 그분 말씀이 아니다; 하느님은 당신 행위들로, 정확히는 당신 종을 드높이시는 유일한 행위로 말씀하신다. 이 종 역시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애초부터 하느님의 계시에 연합되어 있는 듯하다. 이미 살펴본²⁵ 첫 동사 (13a)는 «해내리라»뿐 아니라 «깨달으리라», «깨닫게 하리라» 등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맥은 후자의 의미를 선호하도록 초대한다 (여기서 «비추리라»라는 번역). 이 동사의 다양한 의미들과 모호성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할 수 있다: 어쨌든 귀와 지성이 열리고, 높은 데로부터, 종이 들어올려졌을 곳, 하느님의 오른편 (시편 110,1)에서 그 눈이 비추임을 받게 되었을 그들을 위해, 단 한마디 말할 필요 없이 하느님의 그것처럼 스스로 말하고 계시하는 이 종의 신중함, 겸손을 표시함이리라.

인간들의 계시

하느님이 당신 종의 드높이심으로 계시하실 것은 인간들의 눈먼이다. 그분은 그들이 «보고», «깨달을» 줄 몰랐음을, 나아가 «고통들의 사람 그리고 병에 익숙한 이»를 보고 싶어조차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도록 그들을 이끄시리라; 그들은 «그 앞에서 얼굴을 감추었다» (3). 그들의 깜짝 놀람은 바로 중심에서 (53,1), 그들이 성찰을 시작하는 이중 질문 속에서 폭발한다: «누가 믿을 수 있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는가?». 즉시 그들은 이 비춤이 높은 데서 오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인식한다. 이제 그들은 종의 비참과 함께 자신들이 그를 경멸했음을 말로 표현하고 서술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그들의 고백은 그들의 죄와 동시에 그들의 회개를 증명한다. 그들 편에서 전에 «그들에게 이야기되지 않았던 것»,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15cd), 그들은 그렇게 하느님 계시의 움직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결정적으로, 다른 인간들이 그들 또한 하느님의 계시에 의해 건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그들의 말에 달려 있다. 마치 인간의 말이 다른 말씀을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듯이.

한 악이 다른 악을 드러낼 수 있다

마지막 말까지, 부정하는 토씨가 찌르는 듯한 방식으로 6번이나 각운을 맞춰 발음된다 (15c. 15d.2c [두 번].2d.3d). 그러나 이 문법적 표지는 말하자면 숨겨진 악의 징후 외 다른 아니다. 분명 무엇보다 이 종의 객관적인 낮추어짐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그는 «아름다움»도, 인간적 «외관»도 없었고 (14bc.2cd), 혐오스런 병에 의해 부식된 (3bc), 비참한 식물의 모습으로 축소되었다 (2ab). 그러나 부정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 거주한다: 종은 그들로서는 눈에 띄는 계

²⁴ R.E. Watts («The meaning of 'ālāw yiqpes□û melākīm pīhem in Isaiah LII,15», VT 40 [1990] 327-335)에 따르면, «임금들이 입을 다물리라»는 표현은 놀라움의 표지라기 보다는 임금들이 모든 권위를 잃었음을 인정한다는 예속의 몸짓이다.

²⁵ p. 3 참조.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 (3c). 그가 그답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느님의 얼굴 앞에서뿐이었다 (2ab); 사람들은 반대로 얼굴을 가리면서 그를 부정하려고 했었다 (3c). 정당하게 여기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를 경멸하고 거절하며 (3a.d), 그의 진가를 인정치 않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만든 (2d.3d) 진짜 이유였는지 물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던 이미지인가? 만일 실제 그들이 참을 수 없던 것이 바로 그들 자신의 이미지에 관한 문제였다면? 불치의 악, 특히 몸과 정신이 망가지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들의 가장 좋은 친구들이 자신들을 버리고 멀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이유가 단지 비겁인가? 그보다는 우리가 다가오는 자신의 냉혹한 죽음을 맞대면하길 받아들이고 우리 개인의 부패의 반영으로서 그들을 보는 데서 맛보는 넘어설 수 없는 어려움은 아닌가? 인간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눈매와 자기 자신의 고통,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 의식을 취했다는 사실, 그들이 자신들 안에 거주하는 그 부정을 말로 표현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바 없이 진정한 치유의 여정상에 내디딘 그들의 첫걸음이다.

중심 부분 (53,4-7b)

구성

이 부분은 세 문단을 포함한다: 각기 여섯 구를 집계하는 발전된 두 문단 (4-5b; 6-7b)이 단지 이구 일절에 의해 형성되었을 뿐인 짧은 문단 하나 (5cd)를 틀에 끼운다.

첫 문단 (4-5b)

+ ⁴ 참으로	우리의 병들을	그가 메고 갔고
+ 그리고	우리의 고통들을	짚어졌다.
• 그리고 우리, 우리는 그를 벌받았다고 여겼다, 하느님에 의해 맞았고 천대받았다고.		
+ ⁵ 그리고 그는	찢렸다	우리의 악행들에 의해
+	으스러졌다	우리의 죄악들에 의해.

이 문단은 세 개의 이구로 구성되었다. 극단의 절들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종의 상황을 서술한다. 그럼에도 첫 절의 동사들은 능동태이고 반면에 마지막 절의 동사들은 수동태임을 주목하라: 첫 절은 말하자면 종의 자발성(그가 우리의 병들을 짚어진다)을 서술하고, 마지막 절은 그의 고통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서술한다. 현재 취하는 이 의식에 중심 절(4c)에 표현된 과거의 심판이 대립한다: 이 종의 고난은, 지금은 화자들이 책임을 자인하나, 그 사실들의 순간에는 «하느님» 탓으로 돌려졌었다. 중심 절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놓인 자리와 마찬가지로 (세 과거분사 중 두 번째 분사의 주격 보어), 극단의 절들에서 명사들과 동사들의 도치는 이 문단의 집중 구조를 강조한다.

a 참으로	우리들의 병들을	
b 그가	매고갔고	
c 그리고	우리의 고통들을	
d	휩어졌다.	
	벌받았다고	
그리고 우리, 우리는 그를 여겼다	매맞았다고	하느님에 의해 그리고
	천대받았다고	
	찢렸다	
d' 그리고 그는	우리의 악행들에 의해	
c'	으스러졌다	
b'	우리의 죄악들에 의해.	
a'		

마지막 문단 (6-7b)

+ ⁶ 우리 모두	양들처럼	길을 잃었고	
+ 제각기	제 길로	향했었다.	
• 주님께서는	견뎌내게 하셨다 그에게,	죄를	우리 모두의
+ ⁷ 학대받았고	그는	천대받았으나	
+ 그러나	열지 않았다	자기 입을.	

이 문단의 구성은 전부 첫 문단의 것과 유사하다. 첫 절은 말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 6ab), 그에 반해 마지막 절은 종의 상황 (7)을 서술한다. 중심에 (6c), 종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모두의 배후 인물을 밝히는 해석.

중심 부분의 전체 (53,4-7b)

+ ⁴ 참으로, + 그리고	우리의 병들이었다 우리의 고통들이었다	그가 메고 간 것은 짊어졌던 것은.			
• 그리고 우리, 우리는 그를 벌받았다고 여겼다, 엘로힘에 의해 맞았고 천대받았다 고					
+ ⁵ 그리고 그는 +	찢렸다 으스러졌다	우리의 범죄들에 의해 우리의 죄들 에 의해.			
<table border="1"> <tr> <td>교육 그리고 그의 상처들로</td> <td>우리 구원의 치유가 있다</td> <td>그이 위에 우리를 위한.</td> </tr> </table>			교육 그리고 그의 상처들로	우리 구원의 치유가 있다	그이 위에 우리 를 위한.
교육 그리고 그의 상처들로	우리 구원의 치유가 있다	그이 위에 우리 를 위한.			
+ ⁶ 우리 모두 + 제각기	양들처럼 제 길로	길을 잃었고 향했었다.			
• 그리고 야훼 께서는 그에게 견뎌내게 하셨다, 죄들 우리 모두의					
+ ⁷ 학대받았고 + 그러나	그리고 그는 열지 않았다	천대받았다 자기 입을.			

중심 문단 (5cd)은 단 하나의 이구를 포함하는데, 여기서는 대명사 «우리» (첫 구 끝의 «그»와 병행)를 제외하고는 이구의 어떤 말도 다른 데서 재취되지 않는다. 긍정적인 말들이 사용된 유일한 지점이다: «구원»과 «치유».

극단의 문단들에서 동사 «천대받다» (첫 문단 중심의 4c 와 마지막 문단 끝의 7a)와 명사 «죄/죄들» (첫 문단 끝의 5b 와 마지막 문단 중심의 6c)의 각각 두 번 반복을 대칭 위치에서 교차 대구법으로 언급한다. «그리고 그는»이 마지막 절들의 첫 구들에서 (5a.7a) 재현된다. — 마지막 문단은 «우리»가 전체가 되는 사실에 의해 첫 문단과 구분된다: «우리 모두»가 시작 (6a)과 중심 절의 끝에 (6c) 나온다 — 마지막 문단 중심 (6c)의 «야훼» (주님)란 이름은 첫 문단 중심 (4c)의 «엘로힘» (하느님)에 상응한다; 하느님의 이름은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세 중심들은 서로 상응한다: 4c 는 하느님의 행위에 대한 틀린 첫 해석이다 (이 절을 시작하는 «그리고 우리»는 이 판단의 주체를 가리킨다); 6c 의 해석은 (이 절을 시작하는 «그리고 야훼»는 이 두 번째 판단의 주체를 가리킨다) 첫 판단을 교정하나, 아직도 이 «교육» (5c)의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부분 중심 (5cd)에, 종이 겪은 고통들의 긍정적인 이유 («구원»과 «치유»)가 드러나는 마지막 해석이 있다²⁶. 중심 절의 두 구를 끝맺는 대명사들은, 처음 것은 극단 절들을 («그»는 모든 동사들의 주어를 언급한다), 두 번째 것은 부분의 중심을 틀에 넣는 절들을 («우리»는 5ab 와 6ab 의 주역이다) 소환함을 주목하라²⁷. 또한 중심 문단의 두 번째 구 (5d)가 «상처들»과 «치유»로, 같은 의미론적 환경에 속하는 용어들이 있는 극단 절들로 반송함도 주목하라: 끝의 «학대받았다» (7a)가 반항하는 시작의 «병들»과 «고통들» (4ab); 중심 문단의 첫 구는 (5c) «교육»으로, 우리가 첫 문단 중심 (4c)에서 «여겼던» 것을 교정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마지막 부분의 극단 구들에 상응한다: 한편으로는 이 «교육»이 6a 의 «길을 잃음»에 대립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이 «입을 열지 않았기에» (7b) 침묵적이다.

해석

자기 죄의 발견

이전까지, 우리들은 종의 불행과 그를 자신들이 경멸했었다는 것만을 인식했었다 (2-3).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불행을 그의 불행에 결합하는 관계를 발견한다. 그들이 종을 부정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그의 불행과 무관한 사람들이 고통들에 짓눌린 한 혐오스런 병자 앞에서 보인 경멸의 죄로 일종의 거부 반응이었을 뿐일 수 있었다. 하느님의 계시 (53,1)는 그들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 그들의 경멸은 종이 저지른 악행들의 결과도 원인도 아닌데, 그 자신이 그들의 «범죄들»과 «죄들»의 희생자였기 때문이다 (5a). 그러나 그들의 죄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자기 죄를 벗어버리는 가장 흔한 수단은 자기 희생자 위에 그걸 되던지는 것이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 과오가 정당화되길 원하면 (6a), 타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불행은 하느님께 받은 벌이라고 선언하면서 그걸 신성화하면 그만이다 (4b).

하느님 정의의 발견

마지막 문단은 인간들의 불행 (6ab)과 종의 불행 (7ab)을 함께 서술한다. 주인공들이 상호 관계 없이 분리된 사실은 그들의 공동 불행에 속하는 것 같다: 한편에 그릇된 자기 길에서 각자 고립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광대한 그룹이 있고, 다른 한편에 역시 홀로 자기를 확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침묵하고 있는 종이 있다. 이제 하느님의 업적이 분리된 것을 다시 모으면서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계시된다. 그리고 그분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면서 길 잃은 양들의 목자가 된 종 덕분이다. 이제 하느님의 벌이라 믿어졌던 것이 (4c) 은총으로 인식된다 (6c).

²⁶ 그러므로 왜 중심 절의 첫 말이 부차적 의미일 뿐인 «벌»로가 아니라, *mūsār* 의 주요한 의미인 «교육»으로 번역되었는지 이해될 것이다.

²⁷ 히브리어로, 이 네 구는 일 인칭 복수의 접미 대명사 (-nū)로 운을 넣으면서 끝맺는다: 5ab 의 -ēnū 와 6ab 의 -îmū; 5a 와 6a 의 -ā'ēnū 와 ā'imū.

침묵의 교육

종에 관한 한, 그는 자기 박해자들과 완전히 반대된 행위를 채택한다. 비록 옳지 못해도 그에게 행해진 폭력들에 반발하지 않으며 그걸 다른 이들에게 다시 퍼붓지도 않는다; 그는 악행으로 그를 찌르고 죄악으로 그를 으스러뜨리는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고 (5ab), 오히려 그를 학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 (7a). 그는 불평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려고 입을 얹지 않고 (7a), 병과 고통을 자기 위에 스스로 짊어지면서 그것들의 무시무시한 악순환을 깨부순다 (4a). 그는 이것이 하느님의 길임을 알아보고 그분의 구원과 생명의 뜻에 온전히 부합한다.

깨닫는 고백

종은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그들은 인간들에게 스스로 «이 교육»을 발견하도록 배려한다 (5b). 종을 통해 자신들의 고통이 구원으로 변화되었고 (5c), 자신들이 앓던 병이 이제는 치유되었다고 (5d) 그들 스스로 전하고 있다. 종이 떠맡아 메고 갔던 그들의 죄는 이제 제거되고 폐지되었다 (6c); 같은 사실로, 그들은 죄에 부속된 탓, 하느님께 벌받았다고 종을 고발하면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었던 탓으로부터 해방된다 (4c). 그들이 하느님과 그분 종의 은혜로 평화²⁸의 길을 다시 찾았다고 선포할 때 (5cd), 이를 고백하는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난다. 그들을 고립시키던 오류 (6ab)와 대치되는 이 만장일치의 선포는, 이제 그들 사이를 다스리는 평화, 되찾아진 그들의 일치를 표현한다; 이는 또한 이제 그들이 거부했던 이와 종이 섬겼던 분에 그들을 결합하는 인식의 끈도 표현한다.

²⁸ «구원» (5c)으로 번역되었던, 히브리어 말 *šālôm* 은 또한 «평화»를 의미한다.

세 번째 부분 (53,7c-12)

세 번째 부분은 세 소부분을 포함한다. 극단의 소부분들이 발전된 반면 — 첫 소부분은 열한 구 (7-9c) 그리고 마지막은 열 구 (11-12)를 보유한다 —, 중심 소부분은 아주 짧다: 단지 네 구를 포함할 뿐이다 (10).

구성

첫 소부분 (7c-9)

+ ^{7c} 어린양	처럼	도살장 으로	끌려가는
+ 그리고 어미양	처럼	털 깎는 이들 앞에	말 못하는
- 그리고	않는다	열지	자기 입을

	: ⁸ 억압 으로	판결로	잡혔었지만
	- 그의 후손에 대해	누가	생각해보았는가,
	- 그는 제거당했고	땅으로부터	산 이들의,
	: 범죄로	내 백성의	고난당했으니?

+ ⁹ 그에게 주어졌고		악인들 사이에	그의 매장소가
+		부자들 사이에	그의 무덤이,
- 않았건만		폭력을	그가 저지르지
- 그리고 없었건만		거짓이	그의 입 안에

첫 소부분 (7c-9)은 종이 어떻게 체포되었고 (7cde), 단죄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8) 결국 매장되었는지 (9) 연속적으로 서술하는 세 문단을 포함한다. 극단 문단들의 마지막 구들은 극단 용어들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시작은 부정 그리고 끝은 «그의 입»으로 이루어져 있다 (7d.9b). 중심문단 (8)은 하나의 긴 질문으로 집중 구성을 이룬다: 히브리어로 같은 전치사 («~으로»와 «~로»)로 시작해 수동태 동사로 끝나는 극단 구들 (8ad)은 주어가 종이며 그의 재판을 서술한다; 중심 구들은 그의 개인적 죽음 (8c)과 그의 자손 자체의 소멸 («그의 자손»; 8b)을 보고한다. 시작과 (7cde) 그 다음 표명적으로는 끝에 (9cd 의 «폭력 없고 [...] 거짓 없고») «어린양»과 «어미양»의 이미지들로 표현된 이 종의 온순함은 중심에서 그를 제거했던 사람들의 범죄적 악행 (8: «억압», «판결», «범죄»)에 대치된다; 그들의 거짓의 폭력은 «악인들»과 «부자들» 사이에 의로운 종을 매장하기까지 이른다 (9ab).

중심 소부분 (10)

- ¹⁰ 그리고 주님은	원하셨다	그를 비참하게 하기를;	고통들로
	- 내놓으면 + 그는 보리라 + 길어지리라	희생제물로	그 자신을, 한 자손을, 그의 날들이;
+ 그리고 뜻이	주님의	그의 손안에서	이뤄지리라.

이 문단은 세 절을 포함한다: 두 단일구 (10a.10e)가 하나의 삼구를 틀에 끼워 넣는다 (10bcd). 극단 절들은 단순 어구들로 시작한다: «그리고 주님은 원하셨다» - «그리고 주님의 뜻이». ABB' 유형의 중심 삼구는 극단 절들 간 다리 역할을 한다: 첫 두 구 (10ab)는 종의 고통들과 죽음을, 나머지 세 구 (10cde)는 그의 생존과 그의 최종적 성공을 예고한다. 중심 절이 종의 운명에 대해서만 말하는 반면, 그걸 틀에 끼워 넣는 단일구들은 그에게 일어나는 것을 «주님의 뜻»이라 해석한다.

마지막 소부분 (11-12)

- ¹¹ 고난으로	그 자신의	보고 + 배부르리라	자기 앎으로;
+ 의롭게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 그리고 그들의 죄들을	많은 이들을 그가 짊어지리라.
	: ¹² 그러므로 : 권세자들과	나는 그에게 나누리라 그는 나누리라	많은 이들을 전리품을.
- 이사실 때문에:	바쳤고	죽음에 - 범죄자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헤아려졌으며,
+ 그는	많은 이들의	범죄를 + 범죄자들을 위해	메고 갔고 견디리라.

마지막 소부분 (11-12)은 세 문단에 의해 형성되었다: 첫 문단 (11)은 종의 승리를 예고하는데, 첫 이구 (11ab)에서는 그 자신을 위해, 그 다음 두 번째 이구 (11cd)에서는 «많은 이들을»을 위해서다²⁹. 단 하나의 이구를 포함하는 중심 문단 (12ab)은 여전히 그를 언명함 없이 그에게

²⁹ 구들의 분할은 문제 제기적이다. 여기 제안된 해결은 본문의 리듬을 존중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절의 구성만큼 첫 절의 구성도 — 극단들의 전치사구들과 중간 용어인 동사들 — 훨씬 만족스럽다. 문단은 집중

승리를 주시는 분을 밝히는 단수 일 인칭에 의해 표시된다; 같은 위치 (12ab)에 있는 «나누다» 동사의 재현을 주목하라. 마지막 문단 (12c-f)은 두 이구에 의해 형성된다: «사실 때문에»와 함께 도입된 첫 이구 (cd)는 두 원인절을 등치 배열하며, 두 번째 이구 (ef)는 두 주절을 등치 배열한다³⁰; 한 절에서 다른 절로, «범죄자들»이 동일한 위치에 되돌아온다 (12df). 첫 문단의 극단들 (11a.d)과 마지막 문단의 첫 절은 같은 «그의 존재» (11a.12c)를 가지고 종의 최고 희생을 서술한다³¹. 첫 문단의 중심 (11bc)과 마지막 문단의 두 번째 절은 (12ef) 같은 «많은 이들» (11c. 12e)을 가지고 그의 희생의 결과를 진술한다. «많은 이들»은 중심 문단의 첫 구에 세 번째 돌아온다 (12a).

구성을 이루는 듯하다: 극단에서, 종의 «고난» (11a)은 인간들의 죄들을 견디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11d); 중심 구들에 관한 한, 이들은 종 자신 (11b)을 위한, 그 다음 많은 이들을 위한 (11c) 이 고난의 긍정적인 결과를 서술한다.

³⁰ 저자들의 대부분이 마지막 네 구를 12 의 첫 두 구에 의존하는 같은 원일절로 고려한다. 이미 그 가운데 Abarbanel 은 그걸 명료한 방식으로 말한다: A. NEUBAUER, ed., *The Fifty-Third Chapter of Isaiah According to the Jewish Interpreters*, 1877, New York 19692, I. Texts, 170-171; II, Translations: 186-187 참조. 이제 마지막 절을 시작하는 waw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는, 범죄를...»)는 전제절의 waw 로 고려될 수 있다 (P. JOÜON, *Grammaire de l'hébreu biblique*, 170o; 176e 참조); 12cd 의 두 원인절은 선행하는 것 (12ab)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세 28,47-48; 2 열왕 22,17; 2 역대 34,25 의 경우에서처럼, 이어지는 주절들 (12ef)에 의해 성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의견으로: R. LEVY, *Deutero-Isaiah. A Commentary together with a Preliminary Essay on Deutero-Isaiah's Influence on Jewish Thought*, London 1925, 29; E.J. KISSANE, *The Book of Isaiah*, II, 182; L. ALONSO SCHÖKEL – J.L. SICRE, *Profetas*, Madrid 1980, 330 (그러나, 이 저자들은 자신들의 번역의 문장론적 분할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³¹ «고난»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아주 강하다; 종종 «불행»과 짝지어진다 (시편 25,18; 신명 26,7 도 참조: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분은 우리의 비참,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억압을 보셨다.»). 잠언 31,6-7 에서는 여기서처럼 죽음의 문맥에서 사용된다: «독주는 죽어가는 이에게, 술은 상심한 이에게 주어라; 그것을 마시면 가난을 잊고 괴로움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리라!».

세 번째 부분의 전체 (53,7c-12)

<p>+ ^{7c}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처럼</p> <p>+</p>	<p>그리고 털깎는 이들 앞에 말 못하는 어미양처럼</p> <p>자기 입을 열지 않는다.</p>

<p>: ⁸ 억압으로 판결로 잡혔었지만</p> <p>: 그는 산 이들의 땅으로부터 제거당했고,</p>	<p>그의 후손에 대해 누가 생각해보았는가,</p> <p>내 백성의 범죄로 고난당했으니?</p>

<p>+ ⁹ 그에게 악인들 사이에 그의 매장소가 주어졌고</p> <p>+ 비록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고</p>	<p>부자들 사이에 그의 무덤이,</p> <p>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어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f0f0f0;"> <p>¹⁰ 그리고 야훼는 고통들로 그를 으스러뜨리시기를 원하셨다;</p> <p style="text-align: right;">그가 그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으면,</p> <p style="text-align: right;">그는 한 자손을 보리라,</p> <p style="text-align: right;">그의 날들이 길어지리라;</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리고 야훼의 뜻이 그를 통해 이뤄지리라.</p> </div>	
<p>- ¹¹ 그 자신의 고난으로 볼 것이며</p> <p>+ 나의 의로운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리라</p>	<p>자기 앞으로 배부르리라;</p> <p>그리고 그가 그들의 죄들을 짊어지리라.</p>

<p>: ¹²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이들을 나누리라</p>	<p>그리고 그는 권세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리라.</p>

<p>+ 이 사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음에 바쳤고</p> <p>+ 그는 많은 이들의 범죄를 메고 갔고</p>	<p>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졌다,</p> <p>범죄자들을 위해 견디리라.</p>

긴 두 소부분 (7c-9; 11-12)이 가장 짧은 한 소부분을 틀에 끼워 넣는다 (10). 중심 소부분은 당신 종의 운명을 이끄시는 분의 이름이 두 번 발설된 유일한 곳이다: 수난을 서술하는 시작 (10ab)은 첫 소부분으로 반송하고, 그 반면, 끝 (10cde)은 마지막 소부분의 승리를 예고한다. 히브리어 전치사 «'et»는 첫 소부분의 끝에서 두 번 («사이에»)로 번역됨: 9a), 마지막 소부분의 끝에서 두 번 («과 함께»)로 번역됨: 12ab) 재취된다; «보리라»는 10c와 11a에 나타난다.

중심 소부분의 핵심에 있는 «씨앗», 즉 «자손»은 분명 첫 소부분 중심에 있는 «후손» (8a)과 그리고 마지막 소부분 중심 (12)의, 상속을 함축하는 동사 «나누다»의 두 번 반복과 관계에 놓여져야 한다. «죽음» (12b)의 의미론적 환경에 속하는 말들의 목록 — «도살장» (7c), «매장소»와 «무덤» (9a) — 은 «산 이들» (8b)과 대치된다

해석

근원적인 파괴 (첫 소부분)

이전까지는 종을 억압하던 «고통들»과 «아픔들» (3a.4a)에 대해 다루었을 뿐이었다. 이제야, 그러나 말하자면 충격적으로, 그가 어떤 극단까지 끌려갔었는지 이해하게 된다: «도살장으로» (7c);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제거되었다» (8b), 그는 «매장소»에, «무덤»에 묻혔다 (9a). 비록 «죽음» (12b)이란 말이 결국 언도될 것이기에 이 시의 끝에서 두 번째 절을 기다려야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바로 종에 대한 사형집행과 매장이다. 인간인 그가 털 깎인 후 잡아 찢길 도살용 동물처럼 다루어진다 (7cd); 죽고 난 후, 그는 «악인들»로 취급되며, «부자» 즉 가난한 이를 약탈하는 자와 동일시된다 (9a). 그는 그렇게 폭력의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7), 그것을 집행하는 악인으로도 서술된다 (9); 그에게 모든 악행들이 메어졌다. 그에게 그 같은 «폭력»과 그 같은 «거짓» (9d)이 행사된다. 그는 침묵 속에서(7d.9b) «악인들»의 «폭력»과 «부자»의 «거짓말» (9), «억압과 재판» (8a), 모든 백성의 «범죄» (8b)를 참아 받기를 받아들인 무죄한 사람이다. 그를 치는 죽음이 마침내 극에 달하는데, 단지 그를 억누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를 죽임으로써 그에게서 자손마저 못 보게 해 (8a) 땅으로부터 아예 그의 기억조차 없애버리려 하기 때문이다. 자손의 소유는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파괴될 것이다.

전적인 자기 봉헌 (마지막 소부분)

첫 소부분이 자기 사형집행자들의 폭력에 넘겨진 종의 수동성에 대해 강조한 반면, 마지막 소부분은 실제 그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펼친 능동적인 역할을 계시한다: 외양들과 달리 그는 «자신의 고난» (11a)으로 «그들의 죄들을 짊어졌고» (11b), «죽음에 자신을 바쳤다» (12b); 그는 «많은 이들의 탓을 지고 갔고», «그들의 범죄들을 참아 받았다» (12c): 첫 소부분이 그의 낮추어짐을 서술했던 반면, 마지막은 그의 승리를 예고한다: 그는 희생되기 전 털 깎인 어미양처럼(7c) 전부 털벗겼으나 보라, 권세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12a); 그에게서 후손마저 없애버리길 원했으나 보라, 많은 이들을 유산으로 받으리라 (12a).

주님의 뜻 (중심 소부분)

주님의 이름은 부분의 중심에만 두 번 나타나, 매번 같은 어근의 말과 함께 나온다: «주님은 원하셨다» (10a), «주님의 뜻» (10e). 주님은 이렇게 당신 뜻의 이중 얼굴을 계시하신다: 첫 소부분 (7c-9)이 보도했듯, 당신 종을 으스러뜨렸던 고통들 (10a)과 그가 자기 생명을 바쳤던 희생 (10b)은, 마지막 소부분 (11-12)이 설명할 것이듯, 그분이 원하신 «성취», 즉 죽음 너머의 당신의 풍요, 당신 종의 생명 (10d)으로 흘러들 수 있었던 유일한 길 (10e)으로써 주님께 의해 뜻해졌었다. 주님은 당신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나 (10a),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은 종이다 (10b); 주님의 뜻은 «그를 통해서», 문자적으로 «그의 손으로» 실현된다 (10e). 이는 둘 각자의 바람은 하나이며 하느님의 행위는 당신 종의 행위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의 봄

종이 «보게 될» (10c.11a) 것은 단지 «한 자손»이나 후손 (10c)만이 아니라, 또한 «배부를» (11a) «앞»의 빛이다. 이 봄은 그의 영광스런 미래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그의 고통스런 과거에서 그 뿌리를 발견하는 듯하다. 사실, 만일 그의 뜻 자체가 이뤄지고 주님의 뜻과 합해진다면 (10a.e), 그것은 이 종이 자신의 낮추어짐 자체에서 주님의 뜻을 알았었고, 깨달을 줄 알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주님이 자신의 구원과 모든 인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셨던 길을 볼 줄 알았었다: 운명으로 그걸 받기 위해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걸 상속시키기 위해 (12a) 자기 목숨을 잃는 게 필요했었다 (10b). 그러므로 앞으로 «배부르게» 된다 함 (11a)은 말하자면, 본문이 말하듯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부터 이미 그의 것이었던 앞의 «충만», «완결», «완성», «축성»인 외에 다름 아님을 이해하는 게 가능하다. 생명의 조건으로써 받아들여진 죽음을 통한 생명의 앞이었고, 그를 죽음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어 태어나게 하면서 많은 이들의 아버지가 될 그에게 주었어야 했던 생명의 봄이었다.

이 시의 전체 (이사 52,13-53,12)

구성

극단 부분들은 중심 부분보다 훨씬 전개되었다: 두 번째 부분이 겨우 열네 구 (53,7b-12)로 이루어지는 반면, 첫 부분은 스무 구 (52,13-53,3), 마지막은 스물여섯 구 (53,4-7a)로 이루어진다.

극단 용어들

52,13 에서 «들어올려지리라» (niph'al)로, 53,12 에서 «메고 갔다» (qal)로 번역된 같은 어근의 동사들 (*nś'*)은 이 시의 전체에 대해 극단 용어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작 용어들

52,13 에서 «들어올려지리라» (niph'al)로, 53,12 에서 «메고 갔다» (qal)로 번역된 같은 어근의 동사들 (*nś'*)은 처음 두 부분들에 대해 시작 용어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끝 용어들

동사 «견디다»의 두 번 반복은 (*pg'*: 53,6c에서 *hiphil*로, 12c의 끝에서 *qal*로) 마지막 두 부분에 대해 끝 용어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간 용어들

«존경하다» (3b와 4b)와 마찬가지로 «고통들»과 «병/병들» (3a와 4a)은 처음 두 부분에 대해 중간 용어들의 역할을 수행한다. -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절의 끝과 세 번째 부분의 첫 절의 끝에서 같은 구 «그리고 입을 열지 않았다»의 재취는 마지막 두 부분에 대해 중간 용어들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에 같은 의미론적 환경에 속하는 6a의 «작은 가축»과 7b의 «어린양», «어미양»도 덧붙일 수 있다.

13 보라, 나의 종이 **비추리라**, 그는 오를 것이며 **들어올려지리라**, 그리고 더없이 드높아지리라.

14 마치 **많은 이**들이 너를 보고 질겁하듯이, 그의 **외양**은 사람 같지 않게 망가졌고 그의 외관은 아담의 아들들 같지 않게 —

15 그렇게 **수많은** 민족들이 놀라리라. 그를 보고 임금이 **그들의 입을 다물리라**; 사실 그들에게 이야기되지 않았던 것을 **보리라**, 그리고 듣지 못했던 것을 깨달으리라.

53,¹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그리고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었나?

² 그리고 그는 그분 얼굴 앞에서 새순처럼 메마른 땅으로부터 뿌리처럼 올라왔다; 그에게 외관 없고 우리가 그를 **바라볼 만한**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가 그를 바랄 만한 **외양**도 없었다.

³ 그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고 배척당했으니, **고통**들의 사람이고 **병**으로 **입려졌다**; 남들이 그로부터 얼굴을 가리는 이처럼,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의 **병**들을 **매고 갔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들을 **집어졌다**.
 • 그리고 우리, 우리는 그를 벌받았다 **여겼고**, **엘로힘**에 의해 맞았고 천대받았다고
⁵ 그리고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찢렸다** 우리의 **죄**들에 의해 으스러졌다.

우리 구원의 **교육**이 그분 위에 그리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왔다.

⁶ **우리 모두**가 작은가축처럼 길을 잃었고 제각기 제 길로 향했었다.
 • **야훼**는그에게 **견여내게 하셨다**, **우리 모두**의 **죄**를
⁷ 그는 학대받았고 천대받았다 그러나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그리고 털 깎는 이들 앞에 말 못하는 어미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는다**.

⁸ 억압으로 판결로 잡혔었지만 그의 후손에 대해 누가 생각해보았는가, 그는 산 이들의 땅으로부터 제거당했고, 내 백성의 **범죄**로 고난당했으니?

⁹ 그에게 악인들 사이에 그의 매장소가 부자들 사이에 그의 무덤이 주어졌다, 비록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의 입 안에 거짓이 없었어도.

¹⁰ 그리고 **야훼**는 **병**들로 그를 으스러뜨리기 원하셨다; 그가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한 자손을 **보리라**, 장수하리라; 그리고 **야훼**의 뜻이 그를 통해 이뤄지리라.

¹¹ 그 자신의 고난과 함께 **볼 것**이며 자기 **앞**으로 배부르리라; 나의 의로운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리라 그리고 그가 그들의 **죄**들을 **집어지리라**.

¹²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이**들을 나누리라 그리고 그는 권력자들과 전리품을 나누리라.

자기자신을 죽음에 바쳤고 **범죄**자들과 함께 헤아려진 사실 때문에 그는 **많은 이**들의 **범죄**를 **매고 갔고** **범죄**자들을 위해 **견디리라**.

첫 두 부분 사이 관계들

이미 지적된 중간 용어들과 13a의 «들어올려지리라»와 4a의 «메고 갔다»가 이루는 시작용어들 외에 이 두 부분 사이에 다른 어휘적 관계는 없다; 그 밖에, 첫 부분의 중심과 마지막 소부분같이 (53,1-3), 6절 끝까지 1인칭 복수의 대명사들이 중심 부분을 표시한다.

마지막 두 부분 사이 관계들

어근 *pš'* («범죄»와 «범인»)의 네 번 반복은 이 부분들에만 있으며 (5a.8b.12b.12c), «죄/죄들»의 세 번 반복 (5a.6b.11b)도 마찬가지이다. 동사 «깊어지다»는 4a와 11b에서, 동의어 «맞다», «고난당하다»는 4b와 8b에서, «(하다)-견디다»는 6b와 12c에서 되돌아온다.

극단 부분 사이 관계들

«나의 종»의 단 두 번의 반복은 첫 소부분의 시작 (13)과 마지막 소부분의 시작 (11b)에 있다; — 어근 *r'h*는 첫 부분에서 네 번 (14b와 2b의 «외양», 15b와 2b의 «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두 번 (10b와 11a의 «보다») 돌아온다; — «다수» – «많은 이들» (*rabbim*)은 첫 부분 (14a.15a)에서 두 번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세 번 (11b.12a.12c) 돌아온다: — 11a의 «얹»은 3a의 «알려졌다»를 소환한다; — 7c의 «그의 입을 열지 않는다»는 15a의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를 소환한다; — 끝으로, 두 부분의 중심들은 (1과 10) «야훼»란 이름의 재취와 (1에서 한번 그리고 10에서 두 번) «팔»과 «손» 유사어들로 서로 상응하며, 이 용어들의 첫 번째는 «야훼»와 연관되고 두 번째는 종과 연관된다.

세 부분 사이 관계들

어근 *ns'*의 세 동사들이 중심 부분의 시작 (4a에서 «메고 가다»로 번역됨)에 있듯, 시작과 (52,13에서 «들어놓여지리라»로 번역됨) 끝에 (12c에서 «메고 갔다»로 번역됨) 있다; 비록 처음에는 수동태, 그 다음에는 능동태로 쓰였을지라도, 이 동사들의 주어는 항상 종이다.

«다수» – «많은 이들» (첫 부분의 14a.15a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11b.12a.12c)의 다섯 번 반복에 중심 부분에 있는 «우리 모두»의 두 번 반복 (6a.6b)이 상응한다. 하느님의 이름들의 다섯 번 반복은 전략적인 자리들에 배치된다: 첫 부분의 중심 (53,1)과 마지막 부분의 중심 (53,10에 두 번)에 «야훼», 그리고 중심 부분 극단의 두 문단의 중심에 «엘로힘»과 «야훼» (53,4b.6b)가 나오고, 다른 데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목소리들

이제야 «목소리들»의 문제로 되돌아가는 게 가능하다. 화자들의 변화들이 단독으로 본문의 구성을 결정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시의 구성이 정해진 이상, — 구성의 각 연속 단계들에서 많은 관련 언어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 얼마나 목소리들의 변화들이 이 구성에 상응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 인칭 단수의 대명사 (13의 «나의 종»)가 가리키듯, 첫 소부분 (52,12-15)에서 말하는 이가

하느님이시라는 건 분명하다³². 또한 53,1의 «우리»가 화자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의 담화가 어디까지 펼쳐지며 하느님의 담화는 어디서 다시 시작하는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명사 «우리»는 53,7부터 사라지며, 단지 11b에서 52,13에 나온 «나의 종»의 재취로 일 인칭 단수의 대명사가 명백하게 나타난다³³. 따라서 문제는 7에서 10까지, 더 정확히는 7b에서 10까지 말하는 이를 식별하는 것인데, 7절의 시작이 중심 담화 (4-7a)의 통합 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실상, 11b에 분명히 존재하는 일 인칭 단수의 대명사는 이미 8b에서 돌아왔다: «L'백성의 범죄 때문에»³⁴. 하느님의 담화는 아마도 마지막 소부분의 시작인 11절 이전에 재취되었어야 했는가? 8b의 일 인칭 대명사의 관련자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에 포함된 어느 개인이며, 그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이해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다. 그렐로 (P. Grelot)는 그 개인을 예언자와 동일시한다: 그에 따르면, 53,1-11은 «예언자로부터 그 자신이 소속하는 유대 군중에게 향해진 담화이리라: 그의 “우리”는 포괄적»이다³⁵. 그렇게 «우리»의 담화는 1절에서 10절까지 확장될 수 있으리라; 사실, 증명되었듯이, 본문 구성이, 극단 소부분들 (52,13-15; 53,11-12)은 하느님에 의해 말해졌고 나머지 (53,1-10)는 인간들에 의해 해진 말들이라고 생각하도록 초대하는 듯하다.

«우리» 안에서 해진 담화의 범위들은 합리적으로 인식되었다; 아직 그의 수신자 (혹은 그의 수신자들)로서 화자 (혹은 화자들)를 밝히는 일이 남았다. 1절에서 10절까지 누가 말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유대 군중에게 [향하는] 예언자»라는 게 정말 확실한가? 53,1에서 그들의 담화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3a에서 «사람들»이 종을 확대하고 거부했다고 말한다. «그 존재로 하느님 말씀이 여러 민족들에게 전해졌음을 가리키는 수신자들, 임금들이 정말 자신들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이들과 동일 인물들인가? 아니면 그의 변모가, 그들 또한 변화시킬 들어보지 못한 사실로서 임금들에게 이야기되는 어느 한 백성에 관한 일인가? 어떤 경우든, 사람들 (“우리”)은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한다»³⁶. 결정하기 쉽지 않으며 본문의 모호성은 아마도 존중되어야 한다. 어찌 되었건, 한 가지는 확실한데, 모든 민족들이 종의 운명과 자신들의 공동 구원에 대해 관심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만일 예언자가 자기 백성에게 말한다면, 모든 인간들이 그를 듣도록 말한다; 만일 그의 담화가 포괄적이고 만일 자기 백성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극단의 소부분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많은 이들», «다수», 다른 어떤 백성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 없으리라 (52,14a.15a: 53,11b.12a.12c).

³² 마소라 본문에 의하면, 14a에서 하느님이 이 인칭 단수로 당신 종에게 향하신다는 걸 덧붙일 필요가 있다: «너를 보고 많은 이들이 질겁하듯이».

³³ 예를 들어, «나의 의로운 종은 의롭게 하리라 »로 53,11b에서 하느님의 담화를 재취하게 하는 P. Grelot의 논의 참조 (*Les Poèmes du Serviteur*, 52).

³⁴ 마소라 본문과 다른 모든 역본; 1Qis^a 만 «그의 백성»으로 읽는다.

³⁵ *Les Poèmes du Serviteur*, 53.

³⁶ P. BEAUCHAMP, *Psaumes nuit et jour*, 243. 그의 연구의 시작에서 저자는 이미 다음 말들로 문제를 제기했다: «종에 대해 말하는 목소리들 중 하나는 하느님의 것이다 [...]. 다른 목소리는 사람들의 것이나 다성적이어서 합창단의 서로 다른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의심이 아니다: 하느님은 희생자를 무죄하다 하시고 인간들은 자기들 스스로 죄인들이라 선언한다.» (p. 241).

성경 문맥

이 시의 대부분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하기 쉽지 않다면, 본문의 극단들에서 하느님이 «나의 종» (52,13과 53,11)이라고 부르는 인물을 식별하는 것이 덜 쉽지는 않다. 그를 단체나 개인으로 보는 제안들이 한 무더기를 이룬다: 전 이스라엘, 유다의 유일한 지파, 백성의 한 정예, 예루살렘의 예배 중심, 회당 제도; 제이 이사야, 그의 제자들 중 하나, 한 메시아적 인물, 키로, 다리오, 요아킴, 시드키야, 예로보암과 그 밖의 다른 이들³⁷.

본문의 침묵은 존중되어야 하고 역사적인 어느 인물로 기울기보다는 오히려 표상의 측면에서 이 종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저자가 단체든 개인이든, 자기 시대의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었으리라는 것은 당연히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확한 방식으로 그를 식별하게 해주는 최소한의 요소도 제공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했듯이, 독자는 이 방향에서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표상, 혹은 유형은 하나의 이상적인 인물이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인 것과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의 이해의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사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이 표상은 채워지거나 완성되길 요구하는 하나의 빔이요, 하나의 호소이다. «이상적»과 «완성된»이란 표현은, 이 표상의 근본적인 특성을 적합한 방식으로 함축하는 두 용어이다: 완성과 종말. 한언하면, 만일 종말이 표현되려는 특권적인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기원이다. 발하는 매력, 종의 능력, 위대함은 아마도 그의 이미지가 동시에 기원과 종말로 반송하는 사실에 기인한다.

종말 편에서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죽은 이들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남의 체험을 하자마자 즉시 성경과 하느님의 뜻을 «완성한» 이를 알아보았다는 것이 불가피했다. 기원 편에서 보려면, 앙드레 웨닝(A. Wénin)이 이사 53의 종과 야곱의 아들 요셉 이 두 인물을 관련짓는 명석한 장들을 읽는 게 좋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과하는 상징적 죽음은 계시와 죄의 고백 덕에 그리고 베풀고 받은 용서 덕에, 모두를 위한 생명과 구원의 원천이 되어야 했다³⁸.

요셉이란 인물과 종의 표상의 이 «동일시»는 아직 더 기원 이야기들의 한마당으로 거슬러올라가도록 초대한다. 살해된 무죄한 이의 상징적 표상은 아벨이다. 카인은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자기 형제에게 투사한다. 종처럼 아벨은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그의 운명은 주님께 희생으로 바쳤던 자기 양떼 중 «작은 가축»의 운명과 비슷하다. 종의 네 번째 시가는 기원의 두 번째 죄의 재독으로써 이해될 수 있으리라: 거기서처럼 인간들은 죄인들과 살인자들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단순 반복과 혼동되지 않아야 하는 모든 재독처럼, 이사야서의 재독도 옛 것을 재취하면서 거기에 새 것을 덧붙인다. 근원적인 새로움은 이사야서의 희생자는 아벨처럼 수동적이 아니라 받아들인 죽음을 통해 구원 업적을 완성한다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사야서의 살인자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희생자 안에서 구원의 원천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두 본문 간 가장 의미심장한 접촉점들 중 하나는 아마도 동사 «알다» (*yd'*)일 것이다: 형제 살해 후 주님이 카인에게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 살인자의

³⁷ 이 제안들 가운데 C. NORTH, *The Suffering Servant*; P. Grelot, «Serviteur de YHWH», *DBS* XII, Paris 1994, 958-1016 참조.

³⁸ A. WÉNIN, «Le poème dit du “Serviteur souffrant”», 503-507.

첫마디는: «모릅니다» (창세 4,9)였다. 알기를 거부하는 것은 종의 살인자들도 마찬가지이나, 특별히 그들에게 계시가 이뤄진 이후 그들이 앎을 취하는 데서는 대조된다.

끝으로 웨닝의 제안을³⁹ 따르면서 첫 원죄의 역사와 종의 역사를 관련 짓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종은 새 아담으로서 나타나리라. 아담은 뱀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 선을 악으로 바꾼다; 반대로 종은 자신 위에 악과 죽음을 메고 가기를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달한다. 아담의 이름이 시의 시작에 인용된 사실은 첫 인간과 종의 그런 관계를 신중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외관은 아담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52,14). 그 밖에, 봄과 앎의 주제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강하게 주지시킨다. «하느님은 너희가 이걸 먹는 날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고 너희가 선과 악을 인식하게 되면서 하느님처럼 될 것임을 아신다.» (창세 3,5)라고 뱀이 말하므로, 유혹은 정확히 앎에 관해서이다⁴⁰; «여자가 보니 그 나무 열매는 눈에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였고, 이 나무가 이해하기 위해 바랄 만해 보였다.» (창세 3,6). 첫 동사 (*r'h*)는 이사 52,14b와 53,2b의 «외양»과 이사 52,15c와 53,2b.10b.11a의 «보다»와 같은 어근이다; «이해하다»로 번역된 마지막 동사는 «빛추다»로 번역된 종의 네 번째 시가를 시작하는 동사와 («이해하게 하다»의 의미에서) 동일하다. 이 어휘적 접촉들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이 두 본문 사이 마지막 공통점은: 창세 3의 설화자가 «야훼 엘로힘» («주 하느님»)으로 신을 칭할 때 뱀은 여자를 따라 (3,3) «엘로힘» («하느님»; 3,1.5)이라고만 그를 칭한다; 종의 노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오류의 시간에는 신을 «엘로힘»이라 칭하는 반면 (4b), 그들에게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달았을 때는 «야훼»란 이름으로 그를 칭한다.

해석

«앎을 통한 구원의 “네 번째 시가”에 관한 것이다»⁴¹. 구성의 중심이 이 시의 열쇠, 전환의 열쇠, 해석의 기준이 되는 열쇠이므로, 여기 제안되는 해석은 중심 부분을 초점화한다. 따라서 이 본문 전체의 핵심을 이루는 절의 극단 용어들에서 출발해 관계 접합을 해갈 것이다: «우리 구원의 교육이 그 위에 있고, 그의 상처들에 의해 우리가 치유되었다» (53,5b).

앎

모든 것은 하나의 ‘바라봄’과 함께 시작된다. 그런데 이 ‘바라봄’은 사실 ‘바라봄’이 아닌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라봄’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분명 인간들은 종을 보았었다. 그러나 그에게서 인간이라는 것조차 (52,14b) 알아보질 못했었다; 그들이 그에 대해 첫 부분 끝의 기념 (53,2-3)에서 하는 서술은, 다음과 같은 정식으로 요약될 수 있는 부정들의 긴 속출이다: «보지 앎» (2b). «그를 대수롭게 여기지» 앎으면서, 그를 «경멸했었고», 나아가 그를 «거부했다» (3).

³⁹ A. WÉNIN, «Le poème dit du “Serviteur souffrant”», 505, n. 17: «악한 (뱀)이 승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선을 이용하는 창세 3 이야기의 전도다 (2,16-17의 율법, 하느님의 말씀): 악과 죽음의 승리 (로마 7,10-13 참조)».

⁴⁰ «앎»과 «인식»으로 번역된 극단 동사들은 이사 53,3a.11a에서처럼 히브리어로 같은 말이다 (*yd*).

⁴¹ P. BEAUCHAMP, «Lecture et relecture», 342.

실존조차 부정하기 위함인 듯, 그들은 그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 (3b). 그들은 모르는 것을 선호했다. 이 사람에 대한 «앎»은 단지 «병»과 «고통들» (3a)로만이었다.

인간들이 받는 하느님의 계시 (53,1), 그들에게 종이 기여하는 «비춤» (52,13)은 생각지 않게 그들의 눈을 열어준다: «그들은 그들에게 이야기되지 않았던 것, 그것을 보며 듣지 못했던 것, 그것을 이해한다» (52,15). 종을 보지 않음, 그 안에 외양과 아름다움 없음 (53,2b)은 그들에게 자신의 눈땀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첫 말로 신호된 중심 부분의 시작 (4-7a)부터 그들의 의식 취합이 찬연히 빛난다: 그들은 순식간에 그의 «병»과 그의 «고통들» (3a)이 자신들의 고통들이었고 (4a), 나가서는 자신들의 «범행들»과 «죄들» (5a)의 열매였었음을 본다. 그들은 그렇게 각자가 탈선했었던 (6a) 오류와 «자기를 낮추면서» 그리고 «입을 얹 없이» 자신들이 가하는 고난을 견디어낸 이가 (7a) 자신들에게 해준 «교육»의 올바름을 동시에 깨달을 수 있다. 계시는 그들의 죄와 종의 정의를 동시에 드러내 보여준다. 계시는 또한 하느님이 당신 얼굴을 드러내심이다. 이름의 변화가 그걸 분명히 암시한다: 그들이 «엘로힘» (4b)이라는 공동 이름으로 불렀던 신, 종을 «벌주면서», «그를 때리면서» 그리고 «그를 모욕하면서» 인간들이 표현되는 이 신은 참 하느님이 아니다; 그들의 눈이 자신들의 오류에 대해 열린 후, 그들은 그의 벌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당신 종에게 모두의 죄를 (6b) 감수하게 하셨던 분을 참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을 «야훼»란 그분 고유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이제는 봄과 앎에 대해 전부 말해진 것 같을 수 있으리라. 이제 마지막 부분 (7b-12)은 하나의 놀라운 새로움을 소개한다: 더 이상 종에 의해 인간들에게 기여된 «비춤» (52,13)이나 «교육» (53,5b)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부분의 중심에 강조된 것은 종 자신이 획득할 봄이다: «그는 자손을 보리라» (10b). 주님 자신이 말을 재취하시자마자 «그는 보리라, 자기 앎으로 배부르리라» (11a)고 강조하신다. 종은 죄를 메고 가기를 받아들이면서, 자기 생명을 희생으로 내어주면서 주님의 뜻을 이미 알았었다. 그렇다면, 마치 새로운 것 같은 이 앎, 이 봄은 과연 무엇인가? 종의 사형집행과 매장 이야기 (7b-9) 후, «죽음» (12b)을 가로지르는 앎이 아닐 수 없다. 아니 더 나아가 받아들인 죽음의 열매요 결과인 하나의 봄이다: 그가 «자기 앎으로 배부르리라» (11a)는 것은 «자기 생명을 희생했기» (10a) 때문, «죽음에 자기 목숨을 바쳤기» (12b) 때문이다.

종이 그의 예형이라고 소개된 사람 (52,14b)의 역사와 연관지음 없이 그런 새로움을 이해하기, «이 소식을 믿기» (53,1)란 어렵다: «망가진 그의 외관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고 그의 형상은 더 이상 아담의 아들들의 것이 아니었다». 첫 인간은 그의 여자와 함께 앎의 나무에 손을 대어, 그걸 먹이인양 손아귀에 넣기 원했었다. 이는 자신이나 그의 자손들을 위해 형벌과 죽음을 가져온다». 반대로 새 아담은 주님의 뜻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는 그와 많은 이들, 그의 «자손»에게 죄와 특별히 구원을 알게 하고 생명을 가져온다. 그렇게 종은 더 이상 거짓과 폭력에 의한 첫 인류처럼이 아니라 정의와 겸손에 의한 올바른 새 인류의 기원이 된다: «그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다» (이사 53,9). 그가 짊어진 죄는 아담의 죄, 카인의 죄, 모든 인간들의 죄다. 앎을 장악하려는 의지로서의 죄는 여자가, 이어서 남자가 귀를 기울인 뱀의 거짓말과 함께, 말과 함께 세상에 들어왔다. 진정한 앎, 종이 획득해서 전달하는 앎은 말로 전해지지 않는다: 산 사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 53,7a.7c); 죽고 나서, 그의 소리는 영원히 침묵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죽음은 말을, 주님의 말씀과 특별히 누우치며 거듭난

그의 살인자들의 말을 솟게 한다. 그의 입은 닫혔고, 말하는 것은 그의 피이다. «땅에서 나를 향해 울부짖는 네 형제의 피를 들어라!» (창세 4,10). 카인의 아들들은 아벨의 소리처럼 그리고 털 깎는 이들 앞의 어미양의 소리처럼 말 없이 복수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을 향해 오르는 이 소리를 들었다.

구원

본문의 중심에서 찬연히 빛나는 것은 죄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구원»과 «치유» (5b)를 알아보는 것이다. 상상 가능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죄 의식의 취함은 그걸 고백하는 이들을 짓누르지 않는다; 그들은 가책과 죄책감의 먹이가 아니다. 아담과 그의 여자와 달리 사람들은 하느님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카인과 달리 그들은 «저는 당신 얼굴에서 멀리 몸을 숨겨야겠고 땅을 헤매는 떠돌이가 되겠습니다.» (창세 4,14)라 하지 않으며 것처럼 주님의 현존으로부터 물러나지 않는다 (창세 4,16). 그들의 눈들은 열렸으나 아담이나 그의 여자처럼 자신들의 알몸에 대해서가 아니다 (창세 3,7). 수치는 극복되었고 그들은 있는 그대로 자신들이 보여지는 걸 받아들인다: 분명 죄인들이지만, 구원되고 치유된 죄인들인 것이다.

그들의 죄는 한 타인에 의해 견디어졌고 지어졌다. 탓 없이 그걸 지고 갈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의인에게 옮겨졌다. 그의 상처들로 그들에 대한 치유가 있었다 (5b). 말 없이 그들의 격침 아래 쓰러진 종도 (7-9), 당신 종이 영광받으리라는 것 (52,12-15)과 많은 이들이 의화되리라는 것 (53,11-12)을 말씀하실 뿐인 주님도, 그 누구도 그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주님도 사람들의 죄를 덮어쓰셨다: 그들이 그를 학대하던 같은 순간에, 당신 종을 벌주고 때리고 비하했다고 당신을 고발하면서 (4b) 자신들의 죄를 당신 탓으로 돌렸을 때 주님은 거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고발을 그들에게 되갚지 않으셨다. 그들의 «폭력»과 «거짓말»의 희생자인 종도 그들을 응수 없이 견디었다 (9b). 그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스스로 악에 찬 강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은 오로지 이 침묵이었다 — 이는 누구도 그들을 단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 ; 자신들의 고발들을 들으면서 특별히 그들 자신이 그걸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병들»과 «고통들» (4a)의 표현을 들었던 이들에게 자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침묵이었다. 그들이 죽지 않고 자기 범죄의 순간들을 되살 수 있는 것 (7b-9), 자신들의 잘못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 (6a), 자신들의 고통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4-5a)은, 이 침묵의 «교육» 덕분이다. 죄로 특징지어진 그들의 역사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종의 «손»과 «주님의 팔» (53,1)을 통해 (10b) 작용하던 하나의 희망을 놀라움으로 재발견한다. 누구도 자신이 사랑받았음을 알지 못하면서 사랑할 수 없으며, 희망은 희망을 낳는 법이다. 그래서 종이 «자손을 볼 것이며» (10b), 주님은 «그에게 많은 이들을 나누리라» (12a)고 말해진 것이다. 종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은 무수한 후손이며, 수많은 자녀들이다. 이는 그가 유일하신 분의 아들임과 동시에 모든 이들의 아버지로서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는 그 자체로 인간들이 자신들이 생명을 받는 분의 모상에 일치하도록 불리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 이야기들에서, 어떤 인물이 익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호소적인 기능을 지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타락 이야기의 «여자» (창세 3)처럼, 베타니아의 향유 부은 «여자»도(마태 26,6-13; 마르 14,3-9) 고유한 이름이 없다; 마르코에 따르면 예수의 체포 후 알몸으로 도망친 젊은이 (14,51-52)도

이름이 없다. 익명의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내려 애쓰는 것은 아마도 본문을 이해하는 좋은 방식이 아닐 것이다. 이는 어떤 면에서 독자가 채우도록 초대된 한 양식이다. 한 양식의 하얀 첫 공백들은 보통 정체성에 유보된다: 이름, 성, 생년월일과 탄생지. 익명의 인물은 독자 각자이다. 나다. 일 인칭으로 쓰여진 것과 같이 일 인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본문은 죽은 문자로, 무의미하게 남으리라.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 53,7-8을 읽고 있었다: «어린양처럼...». 그는 종이란 인물을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사도 8,34). 그러자 «필립보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였다» (8,35). 내시가 정말로 깨달았다는 표지는 그가 청해 받은 세례이다: 내시는 그와 동일시된 순간에, «그의 후손»이 된 순간에 정말로 종을 알아보았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내시가 어떻게 그의 그리스어 역에서, 한 내시에게 관심사였음에 틀림없을 질문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사도 8,33)란 이사야의 본문의 질문을 받았을지 말하지 않는다: 루카는 더 이상 그 다음 내용을 연장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끝맺는 걸로 만족한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립보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쁨으로 가득 차서 제 갈 길을 계속 갔다 » (사도 8,3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듣는 이가 네 번째 종의 시가를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면 두 이야기 사이에서 하나의 윤곽을 잡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종의 네 번째 노래가 끝나자마자, 기쁨의 노래 하나가 메아리친다:

기뻐하여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아,	해방과 기쁨의 외침을 터트려라,	
고통들을 느껴보지 못한 너,	혼인한 여인의 아이들보다,	
버려진 여인의 아이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사 54,1).

좀더 앞으로 나가면:

내시는 말하지 마라:	«보라, 나는 마른 나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호하며	나의 계약을 준수하는 내시들에게는
나는 나의 집과 나의 울 안에	아들딸보다 나은 이름과 자리를 하락해주리라;
그들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이름을 주리라
	(이사 56,3-5).

그리스도인들의 기억 속에서, 내시의 이름은 영원히 종의 이름에, 그의 후손은 우리가 소속하는 그의 후손에 하나되어 남는다.